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밀집 5대 상권 개업 적고 폐업 많아...코로나 피해 집중

2019년~2020년 경제변화상
연매출액 1억2200만원
광주 평균보다 300만원 적어

광주에서 생활업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5대 상권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 지표가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광주시 생활업종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자료에 담겼다. 호남통계청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이듬해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제변화상을 비교 분석했다. 생활업종은 소매업 17종과 목욕탕·이발소 등 생활서비스 13종, 여가생활 6종, 음식업 11종, 교육업 11종, 의료업 5종 등 67종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체가 가장 많은 5대 상권으로는 수완지구(4671개), 상무지구(4294개), 충장로 일대(3804개), 전남대 일대(3091개), 봉선동 일대(2447개)가 꼽혔다. 이들 5대 상권 생활업종 사업체 비중은 2019년 기준 전체의 25.8%(7만1031개 중 1만8307개)를 차지한다. 이들 5대 상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을 받을뿐더러 경쟁 포화 상태에 직면하면서 활동 사업체와 개업 사업체가 1년 새 각각 0.4%(-80개), 26.1%(-935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역 활동사업체는 오히려 1.6%(1116개↑) 증가하고, 개업 사업체 감소율(-19.8%)은 5대 상권 감소율을 밑돌았다. 반면 폐업 사업체 감소율은 5대 상권이 10.0%(-283개)로, 광주 평균 감소율 8.9%(-884개)보다 높았다. 5대 상권의 개업률은 14.5%로, 광주 평균(14.6%)과 비슷했지만 1년 새 비율이 5.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평균 감소 폭(-3.9%포인트)을 웃돌았다.

5대 상권 폐업률은 14.0%로, 광주 평균(12.5%)보다 높았다. 5대 상권 평균 연매출액은 1억2200만원으로, 광주 평균 매출액(1억2500만원)보다 300만원 가량 뒤졌다. 광주 평균 매출액이 1년 새 0.7% 증가할 동안 5대 상권은 같은 기간 1.2% 떨어졌다. 평균 영업기간은 5대 상권이 4.0년으로, 평균(4.3년)보다 짧았다. 2020년 기준 광주 5대 상권 소상공인의 28.4%는 연매출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가장 큰 구간을 차지했고, 2000만~5000만원 미만(22.7%), 2억원 이상(17.8%) 순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미만 사업체는 전체의 51.1%를 차지해 2019년에 비해 그 비중이 1.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아울렛 수완점 '아동 전문관' 개관 1주년 브랜드 인기상품 10~30% 할인·사은품 증정

20일 '수완 미니 올림픽' 행사도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아동 전문관' (사진) 개관 1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수완점 아동전문관은 지난해 8월 2975㎡(약 900평) 규모로 조성됐다. 아동 의류와 침구, 교구, 완구를 한 자리서 만날 수 있고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수완점은 젊은 부부와 자녀가 많은 지역상권 특성을 반영해 아동 전문관 개관을 추진했다. 수완점의 주요 고객인 수완지구 주민들은 평균 연령이 32.3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전체 인구수 대비 13세 이하 아동 인구 구성비율은 21.0%로, 광주 평균(8.6%)보다 월등히 높다. 아동 전문관은 그림 카페와 요리 놀이터가 구비된 '동심마루'와 아동 명품브랜드 모음 매장 '모음 키즈', '아기방플렉스'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 이후 1년간 수완점 유아동 상품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아동 전문관 신규 방문 고객은 1만명으로, 이 가운데 30~40대 고객 구성비가 70% 넘는다. 이는

기존 고객 구성비의 12%포인트 더 많은 수치다. 수완점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일주일간 유아동 브랜드 인기상품을 10~3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참여 브랜드는 아디다스키즈, 게스키즈, 네파키즈, 아베기루아 등이다. 15만원,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3% 상당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매장별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오는 20일에는 아동 동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완 미니 올림픽'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축구공 차기, 다트게임, 골프퍼팅 게임을 진행한다. 참여 고객 총 200명에게는 사은품이 주어진다. 어린이 영어카페 '스타루루'와 그림 체험 카페 '리틀클러'는 1주년을 맞아 행사 응모고객 중 추천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열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은 "수완점 아동관은 지난 1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행사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점포로 거듭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철 수산물 맛 보세요"...백화점·마트 다양화로 고객 잡기

광주신세계 신선·고급 어종 판매
롯데광주점 구매 대행 서비스
이마트 일주일간 햇전어 할인



8년 만에 개선공사를 마치고 이달 초 문을 연 광주신세계 지하 1층 프리미엄 푸드마켓 수산물 매장.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진열대에 올리며 미식 고객들 입맛 잡기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8년 만에 대대적인 식품관(프리미엄 푸드마켓) 개선 공사를 최근 마치고 '피쉬컬러'라는 수산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목포 33번 중대인이 당일 새벽에 경매로 공수한 제철 수산물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고등어와 가지미, 갈치, 전갱이 등 생선과 수산물을 백화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새 단장으로 입점한 매장으로는 '김씨 마구로', '영산 흥어', '미성 건생선' 등이 있다. 김씨 마구로는 적대 기준으로 북쪽에서 잡히는 북방 참다랑어 중 단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생물 참치만을 취급한다. 영산 흥어는 숙성 흥어회 납품 20년 경력을 자랑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활동하며 기술 특허를 획득한 미성 건생선은 20년 동안 연잎과 함초를 활용해 건생선과 굴비를 제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프리미엄 푸드마켓 새 단장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완도 전복과 갈치, 멸치 등 지역 수산물을 20~60% 할인 판매한다. 이는 19일부터 25일까지는 목포 먹갈치 한 마리를 1만5900원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자연산 활전복과 덕자 병어, 흑산도 흥어 등 제철 신선식품을 고객이 원하는

만 구매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평소 구하기 어려웠던 제철 식재료를 롯데가 보유한 산지 공급망과 물류망으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제철을 맞춘 햇전어를 할인 판매한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기간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하는 고객에게는 전어를 20% 할인 판매한다. 할인 후 마리당 가격은 대 크기가 900원대, 중 크기는 600원대다. 난류성 어종인 전어는 일반적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알려졌지만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어 어장이 일찍 형성됐고 지난달 15일 끝난 금어기 동안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오른 여름이 가장 먹기 좋은 시기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유통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어 조업이 쉽지 않아 어획 상황은 좋지 않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조업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아 한번 출항할 때 많은 양을 잡아 오는데 미리 판매처를 구해놓지 않으면 폐기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도 늘고 있고 조업 어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마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서해안 전어 조업선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서천 선단, 격포 선단과 협의해 필요 물량을 미리 기획하고 여수 중앙시장과 남해 선단에 전어 전문 물류망을 구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추석맞이 식품안전 특별 점검

전남 400여 하나로마트 대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7일 전남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식품안전 특별 점검에 나섰다. (사진) 농협은 이날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남 약 400여 개의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식품안전 위생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판매장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일일점검표를 활용한 수시 점검 등 판매장 자체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판매장에 대한 식품안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